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3월 26일(주일) 제1141호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4월 26~28일 서빙고 본당 오전 10시
강사 에드 코리 목사,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막 오른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제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에드 코리(Equipping hearts-Recovery Ministry 대표) 목사와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이번 회복축제는 일반강의, 선택강의, 저녁집회로 꾸며진다. 일반강의에서는 에드 코리 목사가 ‘회복으로의 초대’,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은혜’, ‘은혜와 두려움(동반의존 극복하기)’, 박성심 사모가 ‘기쁨과 평강으로 향하는 문’, ‘평강을 회복하는 길’, ‘상처 있는 기억으로부터 기쁨과 평화로 회복되는 길’을 주제로 강의한다. 선택강의는 회복소그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프리덤스쿨 등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소개한다.

저녁집회도 3일 동안 이어진다. 26

일 ‘기쁨을 증가시키는 길’ 박성심 사모, 27일 ‘뇌를 변화시키는 은혜’ 에드 코리 목사, 28일 ‘기쁨과 평강을 확장하는 길’을 주제로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특순도 다채롭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스포츠 트레이너 정주호, 사랑채버, 라인댄스 강사 서혜영, 프리덤스쿨 사역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늘(26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이다. 4월 18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할인해 준다. 탁아실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자모실을 이용하면 된다. 회복축제가 끝나자마자 회복세미나가 시작된다.

4월 29일(토), 5월 1~2일(월, 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강사는 회복축제와 동일하다. 문의: 02-3215-3532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진은 2015년 회복축제.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

4월 10~14일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저녁 9시에 드린다.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주제로 드리는 이번 고난주간 심야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가 설교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성서교독, 침묵기도, 말씀 선포, 합심기도, 개인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요일 예배에서는 가상질언 낭독, 촛불 세리모니, 성찬식 등이 거행된다.

요일별로 주찬양, 주향환, 위십과

이어, 대청, 주사랑 찬양사역팀이 특순으로 섬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 동안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미디어나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시간 전후에 침묵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로 했다. 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 나무’가 설치된다. 성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이 나무에 못 박고 회개할 수 있다.

예배본부장 김재석 목사는 “하나님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바란다”며 고난주간 심야예배 참석을 당부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일을 의미한다. 고난주일(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부활전날)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과 회개를 묵상하는 절기로 기독교의 핵심 절기 중 하나다.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에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개국 12주년 감사예배

‘후원자 5만 명 달성’ 비전 선포

CGNTV가 개국 12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24일 서빙고 경찬홀에서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김성묵 장로, CGNTV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주인공 윤안나 자매의 간증,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정상건 장로의 축사, 이용경 대표의 감사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이날 CGNTV는 ‘정기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정상건 장로는 “지난 12년 동안 CGNTV는 재정이 부족해도 방송을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한 때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CGNTV 개국 12주년 행사가 열린다. 트리아트,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라

“천국에 있는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온 트완 형제의 두 번째 꿈



아내를 보내고 신학공부를 하겠다고 새로운 꿈을 꾸는 트완 형제.

이 길을 함께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낸 남편이 홀로 교회에 가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슴시린 사연의 주인공은 베트남에서 온 트완 형제다. 그가 성장한 베트남은 불교, 유교, 민속신앙이 강한 지역이다. 예수 이야기가 낯설기만한 곳이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 덕분이다. 함께 교회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남편 전도를 위하여 수 없이 많은 날을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트완 형제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했다. 한국에 온 것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당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려면 브로커에게 큰돈을 지불해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빚까지 져가며 한국에 왔다.

한국은 너무 추웠다.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얼음장 같았다. 시끄러운 기계소리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라곤 사장의 욕설뿐이었다. 그 힘들고 고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하자고 한국에 왔는데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아팠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에서 일하던 정비소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사장님의 딸이 한국에 온다는 연락이었다. 그는 한국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만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에 왔다. 그는 그녀가 걱정돼서 쉬는 날마다 수원에서 대구까지 다니며 보살폈다.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더라도 2시간 정도 밖에 못보고 왔어요. 어쩔 때는 얼굴만 보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아니까 보러갔어요. 가서 한국 말도 알려주고 안부도 물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사랑이 싹텄다. 그 사랑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줬다.

아내 따라 교회를 가다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다.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좋고 행복했다.

“뭐든지 다 잘했어요. 요리도 잘하고, 베트남 글씨도 참 잘 썼었어요. 미용도 잘해서 제 머리카락도 잘라줬어요.”

이만하면 팔불출이 따로 없다. 그가 일하러 가면 아내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에 아내의 고향 친구가 전도를 했다. 아내에게 교회는 유일한 교제의 장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의 제사를 지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못 지내게 되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갔죠. 이단들이 집에 찾아와 귀찮게 한 것도 있고요. 자주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와 달리 아내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갔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교회 친구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속 시원한 말을 듣지는 못했

어요.”

이번에도 실패였다. 그의 마음이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예상치 못한 길을 여셨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지더라고요. 화가 날 때도 남을 욕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더 이상 안산M센터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아내를 데려다 주고 건물 밖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안산M센터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솔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말문을 트면서부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그렇게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경사스런 일도 생겼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친정에 머물면서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트완 형제도 한국에서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교회에 갔다.

“예배를 드리다보니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도사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졌다. 고향에서 세 식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꿈도 꿔다.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서 살고 싶었어요. 비자문제로 아기는 한국에 올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번 돈으로 처갓집 근처에 땅도 샀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쌀국수 장사도 하려고 했어요.”

계획대로 척척 진행됐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뿐이었다.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장사할 곳에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럭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손 쓸 틈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저는 한국에서 자고 있었어요. 몹시 피곤해서 핸드폰 울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트남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연락했더니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리나케 군산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에 베트남에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아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사고를 당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다.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비난했어요. 주술사까지 불러 아내의 영혼을 소환했다며 아내 흉내를 냈어요.”

그가 꾸 꿈과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그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은 그가 견디기에 너무 벅찬 시련이었다. 다시 한국에 왔지만 삶의 희망이었던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회사, 집, 교회 어딜 가도 눈물만 흘렸다.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도대체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착한 아내를 데려가셨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아내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니 괜찮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빼아픈 시련이 그의 신앙을 성숙시켰다.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다.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아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신학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형편상 불가능하고, 베트남에서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 꼭 그 꿈을 이룰거예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슬럼가의 12~16세 청소년 200여 명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내린 결론은 그들의 90%가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예측이 맞았을까요. 그 200여 명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없었지만 180여 명 정도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4명만이 교도소에 있고 나머지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90% 이상이 교도소에 가 있을 거라던 예측이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변화의 중심에 한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선생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었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여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한 마디 말 덕분에 사회적으로 가망 없어 보이던 슬럼가 청소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혼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혼란한 세상, 타락해 가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만들고, 무서운 법을 만들어도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리 교수를 제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

사람들에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소속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큼니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취나 소유를 통

해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라고 했으며,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왜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삶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정신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도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쉼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앞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쉼마라고 부릅니다. 쉼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밀한 사랑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모습

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미소가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해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편해 하거나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 더러움, 수치가 하나님이 나를 떠올리면서 미소 짓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자녀의 옳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부모가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때가 있지만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죄악 된 모습, 더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감춰두고 과장되거나 위장되고,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쁜 모습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수치스런 모습,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만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수치스러움, 연약함, 부족함, 불안전함, 죄악 된 모습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장된 자아, 거짓된 자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익숙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율법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온 영혼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거꾸로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니까. 사랑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의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뜨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에 몸을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력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물에 떠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가라앉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가라앉습니다. 부력에 온전히 의탁해보십시오.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강물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 그 사랑 안에 뜨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13편에 계속〉

전문가 기고 - 성경과 법

거짓증거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현대인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

세상이 어수선하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터넷에는 검증 안 된 거짓정보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을 받은 세상법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한정시키고 있다. 성경은 진리다. 세상법은 성경의 하류일 뿐이다.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이길수 장로의 '성경과 법'에 대한 글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계약)을 나타낸다.



이길수 장로
(서빙고 공동체)

성경은 여러 면에서 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뜻하므로 성경은 일종의 계약서

라고 볼 수 있다. 구약의 핵심은 인간의 율법 준수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은 실제로 유대민족을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십계명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는 계명을 다시 생각해 본다.

거짓증언,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 문제는 법 규정보다 우리들의 의식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국회 청문회, 탄핵 재판에 이어 많은 형사재판이 계속되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문제는 청문회나 재판에서 여러 증인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십계명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등과 함께 위증을 금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신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계 21:8)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니 엄하게 금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절도죄(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슷한 형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서인지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박약하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정반대의 증언이 나와 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심하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들이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다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시인하는 일이 너무 많다.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보다 국민(언론)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우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정직함이 자신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문제는 법 규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다. 다문계약서나 위장전입은 물론, 절세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탈세(이 모든 것들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다)에 대하여 큰 죄의식이 없다. 설사 탈세로 처벌받아도 이를 크게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고액의 탈세는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고 성폭행 죄와 비슷한 중범죄이다.

필자는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위증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피노물 흘리는 당사자를 많이 보았다. 위증을 부끄러운 중범죄로 여기지 않는 이상 재판은 거짓말 경쟁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길 것이다.

아마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테지만 특별히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믿음 따로 삶 따로다. 청문회나 재판에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도 많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끼여들기를 꺼려해서 증언하기를 주저하곤 한다. 하지만 증언은 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의무다. 형사소송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

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성경은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레 5:1)며 이유 없는 증언 거부를 금하였다. 삶 가운데 모든 모양의 거짓이 없는 정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 부모를 공경하면 큰 축복이

필자가 다룬 사건이다. 모친이 미국에 오래 살면서 돈을 꽤 모아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자신이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들은 모친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모친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하였다. 모친은 어차피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했다. 십여 년 후, 모친이 고국에 돌아오니 아들이 그 빌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아들은 모친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어 빌딩을 산 것이므로 빌린 돈만 갚겠다고 했다. 결국 모자간에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빌딩은 매입 때보다 시가가 5-6배 상승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인 탓에 모친은 처음 아들에게 준 돈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이다. 부친이 중병에 걸려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등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생전증여를 한 것이다. 그런데 부친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증여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자 아들이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부친은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상 증여 취소는 쉽지 않아 결국 부친이 패소했다.

부모 자녀 간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는 노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쏟

는다.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재산 앞에서 부모에 대한 효(孝)를 잊어가고 있다.

위 사건들은 재력이 있는 부모의 경우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들과 연력이 깊은 채 혼자 빈곤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신 노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노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느라 부모를 봉양할 여유가 없다. 그렇지만 민법(제974조)은 일정한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니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자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효의 정신이 약해진 것이 전통적 유교사상이 쇠퇴한 탓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구한말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만큼 교세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진정 기독교인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중하게 여겼다면 이 사회의 효의 정신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제 5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과연 기독교인들이 비신앙인 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봉양한 루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엢 6:1-3).

이길수 장로는 ...
당회운영위원
차세대지역본부 대표장로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함께 묵상하기 - 사순절의 바람직한 의미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 묵상하며 신앙을 근신하고 절제하는 기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위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영적훈련

사순절이다(3월 1일~4월 15일). 이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은 기도, 금식, 절제, 구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해야 한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해영 목사가 '사순절의 바람직한 의미'를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四旬節)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해 부활주일 전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간의 기간을 말한다.

사순절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난주간을 포함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수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각성하고자 근신과 절제의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금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와 신앙의 성숙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들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 두 주간의 준비기를 두고 금식과 기도로써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미 성도로 입교된 사람들도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

사순절에 지켜지는 금식이나 금욕과 같은 어떤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율법적 행위는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종교적 형식을 본받는 위선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중세의 사순절 금식에는 많은 형식과 위선이 행해졌다. 부자들은 금기된 고기 대신 맛좋은 진미로 대신하였으며, 사순절의 금욕생활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육제(camival)가 생겨나는 등 제어 받지 않는 환락에 빠지는 파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결국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과 절차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폐지 또는 간소화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의 바람직한 의미를 회복하며 계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순절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맞이하려는

준비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곧 사순절은 부활하신 주님,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절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영적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메시지는 바로 '천국의 도래'였다(마 4:17).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천국이란 인생의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란 사후에 들어가는 미래의 어떤 세계라고만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권이 바뀌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란 나라가 바뀌는 것이며 통치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에 종노릇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존재 양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을 먼저 열거하였다(갈 5:19-21). 호색과 투기, 술 취함과 방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심을 통해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실재가 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하나님 나라)을 사후 세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신앙을 가진 자이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계 3:1).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왕 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성서적인 의미의 절제의 삶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통제' (self-control)의 삶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경험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란 주권이 전이된 것으로,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써의 절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와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비워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음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후 13:5).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성령의 충만하신 통치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유들 곧 물질과 소유, 시간과 여가, 명예와 권리, 욕구와 욕망 등을 얼마든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해영 목사
(서대문공동체)

“사순절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 기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후 세계만이 아니라, 현재 속에 임한 어떤 실재였다.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주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마 6:10).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본질이다. 그렇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사탄의 나라와 통치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마 12:26)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터와 같다.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탕함 등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악덕목들은 모두 무절제함을 드러내는 행위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절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기쁨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의미하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고백은 말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곧 왕적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의 거듭남의 증거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절제'가 말하는 뜻이 의미심장하다.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 '~안에'라는 뜻의 '엔'과 '힘, 주권'이라는 뜻의 '크라토스'의 합성명사다. 즉 '주권 안에 두는 것'이란 뜻인데, 그 주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란 내 인생의 주권과 통제권을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 북을치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Point5공동체 성도들.

달리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Point5공동체, 달린 거리만큼 선교헌금 봉헌

Point5공동체에는 ‘달리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매년 마라톤대회에 출전해서 달린 거리만큼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이렇게 봉헌한 선교헌금은 여름 아웃리치에서 사용된다. 지난 19일에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수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달렸더니 62명이 무려 1123.95km나 달렸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달리는 선교사들은 ‘돌이키면 살아난다’, ‘Jesus loves you’가 적힌 깃발을 들고 광화문~청계천~흥인지문~신설동오거리~군자역~어린이대공원~잠실대교~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렸다. 기자도 그들과 함께 달렸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전 6시 30분, 서대문경찰서 인근에 Point5 공동체 소속 형제자매들이 모였다. 오늘 열리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다.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눈빛이 매서웠다. 그들이 바로 달리는 선교사들이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기만을 비르고 있었다.

그들이 달리는 이유

그들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는 선교라는 사명 때문이다. 달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뛰지 않을 수 없었다. 달리는 선교사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고 마라톤대회 3개월 전부터 피나는 연습을 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한강을 달리고 또 달렸다. 혼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달리는 선교사들이 함께 했다.

정재훈 목사는 Point5공동체가 달리는 이유

를 이렇게 설명했다.

“달리는 선교사들이 뛰면 땀수룩 여름 아웃리치가 풍성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목표는 1000km다. 올 여름 고창, 통영, 안산 등 국내외에서 실시 될 아웃리치에서 고아, 농어촌교회 차세대, 탈북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 세운 목표다. 이 날을 위하여 3개월을 준비했다. 현장에서 같이 뛰는 기자에게도 왠지 모를 사명감이 생겼다.

드디어 출발선에 섰다. 지난해 여름 전북 고창 아웃리치에서 만난 행복원 아이들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아이들을 또 만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준비 운동까지 마쳤다. 오전 8시 10분, 부푼 기대감과 사명감을 안고 출발했다. 잔뜩 긴장했던 몸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출발하기 전까지가 가장 떨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팠지만

달리는 선교사들도 그랬다. 출발 전까지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한층 밝아졌다. 최고남 형제의 표정에서는 빛이 났다. 그는 연습 때도 15km이상을 달려 본 적이 없어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42.195km 풀코스 완주를 작정한 허선민 형제는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어느새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계천으로 향했다. 선선한 날씨가 좋았고, 달리면서 보이는 서울 구석구석의 풍경이 참 멋있었다. 10km쯤 달렸을까. 동대문 평화시장 중간지점에서 민승기 형제와 손주리 자매를 만났다. 그들은 이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공동체 생활과 선교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간 것 같다고 했다. 민승기 형제는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는데 공동체 생활의 기쁨과 선교와 아웃리치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얻게 됐다”고 고백했다. 손주리 자매는 “오늘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알게 해 줄 여름 아웃리치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10km가 넘어서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뛰면서 인터뷰까지 하려니 더 힘들었다. 숨은 차오르고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더 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했더니 힘이 났다. 달리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강예지 자매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면서 목표보다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프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던 최고남 형제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15km를 넘어서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신기하게 다리가 움직였다. 결국 그는 이날 목표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중보기도와 헌금

같은 시각,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홀에서는 Point5공동체 예배준비가 한창이었다. 벌써 마라톤대회에서 작정한 거리를 완주하고 온 지체들이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선교헌금 봉헌이었다. 이날 예배에서 선교헌금을 봉헌한 지체들은 보내는 선교사들이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달리는 선교사들이 달린 총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헌금하기로 했다. 달리는 선교사들이 몇 Km를 달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한 성도들도 있었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달리는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도 했다.

보내는 선교사 김현진 형제는 “부상 때문에 같이 달리지는 못 했지만 한마음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양준경 장로는 “선교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달리고, 후원하고, 아웃리치를 가는 과정에서 큰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걸음만 더

Point5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시각에도 달리는 선교사들은 쉼 없이 뛰었다. 중간에 다치거나 포기한 지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달리는 선교사 62명은 총 1123.95km를 뛰었다. 당초 작정했던 1000km를 훌쩍 넘었다. 42.195km를 완주한 달리는 선교사도 무려 5명이나 있었다.

허선민 형제는 첫 완주 타이프를 끊었다. 그는 “정말 힘들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완주 소감을 밝혔다. 다른 완주자들도 같은 마음, 같은 대답이었다.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았는데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체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했다. ‘한 걸음만 더’라는 생각으로 뛴 것이 완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형제는 “함께 준비하고, 달리고, 기도해준 공동체 지체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임면 형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달리고 있단다’라고 속삭여 주신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Point5공동체 달리는 선교사 62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표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달렸다. 날씨가 좋아서 더 달리고, 함께 뛰는 지체들이 있어서 더 달렸으며,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이 생각나서 더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달렸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젊은 CEO가 있다.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올’ 최유강 대표다. 그는 올해 마흔세 살이다. 명함에 딱하니 쓰여 있는 ‘교육학 박사’라는 이력이 눈에 띈다. 흔히 CEO하면 경제나 경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CEO는 공부를 팔고 있다. 그것도 무료로.

“드림터치포올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억눌린 자(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인터뷰 내내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게 되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공부해서 남 주자!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올’ 최유강 대표



공부해서 남 주는 젊은 CEO 최유강 대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1일,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드림터치포올 사무실을 찾았다. 최유강 대표의 첫인상은 부유(富裕)했다. 돈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 아니다. 밝고 부드러운 표정과 힘 있고 소신 있는 말투, 겸손하지만 비전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한없는 당당함이 그를 부유해 보이게 했다.

그는 비영리 교육단체 ‘드림터치포올’ 대표다. 드림터치포올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학교를 찾아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맡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정서적 멘토링도 겸해 준다. 쉽게 말해 무료 학습프로그램과 인생 상담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교육봉사자 대부분이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결코 쉽게 얻은 봉사자리가 아니다. 교육봉사자가 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에세이 5개를 써야 하고, 범죄기록도 없어야 한다. 추천인도 4명이나 있어야 한다. 이력서,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 서류 심사에 이어 면접과 모의강의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1박2일 동안 교수법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렇게 교육봉사자가 된다. 그제 다가 아니다. 교육봉사자들은 주 5~6일, 하루 서너 시간을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방학 때는 하루

에 6~8시간을 가르친다. 학생을 한 번 맡으면 3~4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중간평가는 물론이고, 수업계획서도 써야 한다. 수업목표와 달성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철저하기 이를 데 없다. 절대 쉽지 않아 보이는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섬기고 있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유가 뭘까.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드림터치포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시켰더니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하더라고요. 놀랍고 감사하죠.”

한동대학교가 없었다면...

최유강 대표는 왜 하고많은 사업 중에서 이윤이 나지 않는 교육봉사 사업을 시작했을까. “재수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고학생이 되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공부해서 남 주자’는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최유강 대표는 삼수 만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때가 1996년이였다. 한동대학교 설립 초기였는데 학교도 위기가 참 많은 시절이

었다.

“제가 한동대학교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학교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의 경제 사정도 열악한데 학교 상황마저 좋지 않았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다. 고학생 인지라 캠퍼스의 낭만이나 여유는 꿈도 꾀보지 못했다. 매일 새벽 4~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직행했다. 순수한 학구열 때문이 아니었다. 평일 저녁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가려면 미리 과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면 주일예배 드리고 차 한 잔 마시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다.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러 시내로 가야했거든요.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무섭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워서 눈물콧물 흘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한동대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김영길 총장님이 도서관에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격려해주시고, 교수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제 등록금을 내주신 적도 있어요. 본인도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제 책상서랍에 몰래 넣고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조금의 도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한동대학교가 그에게 준 선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봉사라는 비전도 선사했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공부해서 남 주자’는 소리를 들었어요. 4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학교 재학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미국 유학생들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찌보면 무모한 도전이었다.

“당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아마 수백 명은 넘었을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육 비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힘든 유학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고, 비전에 대하여 확신하고 또 확신했다.

“하나님이 마치 ‘너는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내 전적인 은혜로 너를 채워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엄청난 기회와 사랑을 가정형편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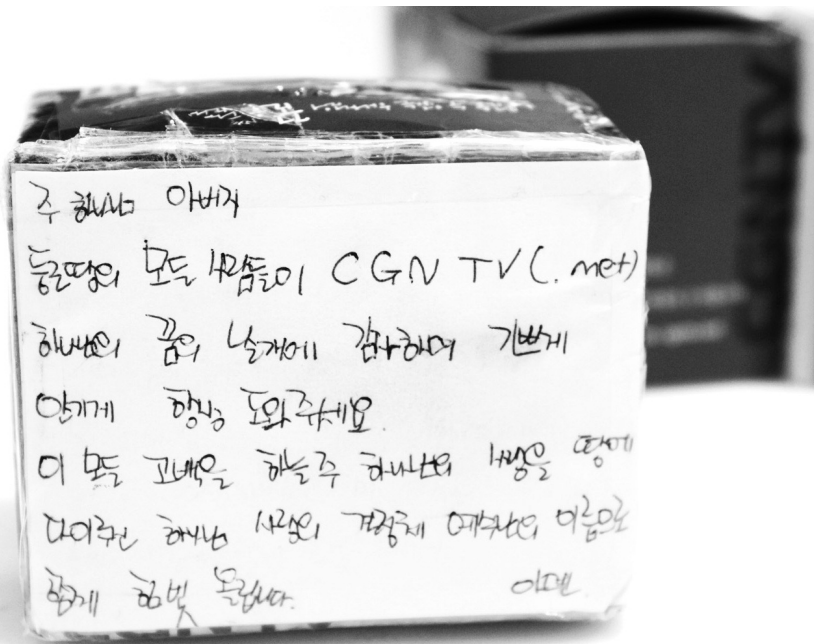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드림터치포올 사업을 시작했다. 현장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책으로 공부한 것과 현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육봉사 사업이 6년 만에 풀타임 스태프 13명, 매학기 파송 봉사자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거쳐 간 교육봉사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지금은 서울시 은평구에 교육센터 1호를 세워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꿈에 부풀어 있다.

“온누리교회에 정말 감사 드려요. 드림터치포올에 비전현금을 지원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림터치포올의 사업은 제3섹터(제1섹터 정부영역, 제2섹터 민간영리부분, 제3섹터 비영리 민간단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정부 영역처럼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영리 영역처럼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영역입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 영역에서 같이 사업하고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터치포올(Dream Touch For All)은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봉사단체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을 양성해서 비용 없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영역까지 멘토링 해주면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1년 인천 송덕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충남 부여중학교, 부여여자중학교,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여명학교, 인천 광성고등학교, 파주 세경고등학교, 자오나학교, 탈북아동 미래소망스쿨 등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3월 12일 봉헌한 3월 비전현금 5천 5백만 원이 은평교육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전 땡그랑! CGN 안테나 우뚝!

CGNTV 드림통 후원액 6천만 원 넘어



CGNTV 드림통과 함께 온 편지.

CGNTV 드림통 후원액이 6천만 원(61,835,520원)이 넘는다. 선교지에 CGNTV 안테나 200개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다. CGNTV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드림통에 동전과 지폐를 모아 후원한 금액이 6천만 원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두 사람만 참여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고무적이다.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든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맺은 열매다. 그 어떤 열매보다 달콤하고 귀할 수밖에 없다.

/ 김영선 K4458@onnuri.org

“땡그랑~”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 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 모른다.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다보면 어느새 저금통의 배가 뽕뽕해진다. 그렇게 모인 저금통을 CGNTV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 보고 남은 동전, 군것질하고 남은 동전,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모아 CGNTV에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CGNTV는 이 저금통을 ‘드림통’이라고 부른다. ‘드림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금통 후원이 선교지에 CGNTV 안테나를 세워주는 ‘드림 프로젝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CGNTV 드림통은 2014년 10월부터 배포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모인 금액이 지금까지 61,835,520원이다. 선교지에 안테나 200개를 세울 수 있는 큰 금액이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6천만 원만큼 쌓아 올리면 1,060미터나 된다. 63빌딩보다 38배 높다. 100원짜리 동전을 바다에 하나씩 놓으면 서울 월드컵경기장 32개를 채울 수 있는 면적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모인 것이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물론 타 교회 성도들까지 마음을 모았다.

드림통보다 좋은 선교교육이 없다

대전 온누리교회 송강숙 성도는 CGNTV의 후원자이자 애청자다. CGNTV만큼 풍성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주는 방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청자가 됐다. 매일 CGNTV에서 방영하는 QT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CGNTV가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홍보 영상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 줄 CGNTV 안테나를 하루빨리 달아주고 싶었어요. 이것보다 좋은 선교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CGNTV를 후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에 차세대 부서에서 나눠주는 드림통을 받았다. 자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보다 좋은 살아있는 신앙교육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엄마는 CGNTV 드림은 프로젝트를 후

원해서 좋고, 딸은 스스로 동전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보다 좋은 자녀교육이 없다.

“어른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쉬운데, 아이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림통 후원을 통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선교교육을 해주고 싶었어요.”

딸에게도 드림통 후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줬다. 동전을 다 채우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더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집에 있던 돼지저금통이 아니라 드림통에 저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부름 하고 돈이 남으면 ‘남은 돈 현금할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동전을 넣더라고요.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보면 ‘엄마 이거 현금하자’라면서 드림통에 먼저 넣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했는지 몰라요.”

두 모녀는 벌써 배가 뽕뽕한 드림통 하나를 CGNTV에 후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드림통도 후원 할 것이다. 드림통 후원은 딸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유익이 참 많다.

“자녀에게 실질적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부모가 현금하고, CGNTV를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드림통 후원 같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서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딸이 CGNTV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더 많은 차세대들과 부모들이 드림통 후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아이들이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스스로 선교에 동참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잖아요. 우리 딸은 벌써 한 통을 다 채우고 두 번째 드림통을 채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후원과는 또 다른 맛

드림통 후원은 정기후원과 또 다른 맛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다. 양천공동체 강혜님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에게 CGNTV는 삶의 일부다. CGNTV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목동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새벽예배를 나오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었는데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열혈애청자가 됐다. 매일 새벽을 CGNTV로 깨우고 있다.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와 선교지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신앙도 성숙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굳건하지는

않았어요. CGNTV가 제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번은 몽골 아웃리치를 갔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에게 CGNTV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 몽골 초이발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가 CGNTV가 나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CGNTV에서 공급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선교사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창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CGNTV 안테나를 훔쳐간 것이다.

“제가 선교사님께 CGNTV 안테나를 다시 달아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래봤자 또 훔쳐간 다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에게 CGNTV 안테나를 달아 드리는 일에 동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정기후원 약정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했다. CGNTV 드림통 후원에도 동참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원, 500원씩 저금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잔돈은 무조건 드림통에 넣자고 선포했지요.”

그렇게 매일 동전을 모으면서 CGNTV를 생각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자연스레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졌다.

“매일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후원한 만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날마다 후원금을 모으면서 CGNTV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기후원과는 또 다른 맛이라고 했다. 그 재미에 빠지면 후원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정기후원은 계좌로 빠져나가니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림통은 달라요. 넣으면 넣을수록 무거워지고 꼭 차는 맛이 있어요. 꼭 찬 드림통을 CGNTV로 보낼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드림통 후원 이렇게 동참하세요

1. 각 캠퍼스에 있는 드림통 모금함에서 드림통을 가지고 간다.
2. 드림통을 동전이나 지폐로 채운다.
3. 다 채워진 드림통을 CGNTV로 전달한다.
택배(착불):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59길 8 CGNTV 후원기획실 앞
계좌송금: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 온누리선교재단)
수거함 제출: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4. 새로운 드림통을 가지고 간다.
문의: 02-796-2243

새로운 사역을 소개합니다 -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

영적 권위 회복, 신앙전수, 믿음의 가정 세우는 효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는 일석삼조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한 아버지 양육자 반이 4월 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다. 첫 주는 차세대본부장 노희태 목사, 둘째 주는 일대일사역 담당 이기훈 목사가 강의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난 2월,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이 정식 출범했다.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일대일 제자양육이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수평적 구조였다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수직적 구조이다. 수직적 구조는 세대 간 신앙 전수(G2G; Generation to Generation)를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녀들을 차세대 예배에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이 해오고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후자는 효과가 빠어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그 도구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고, 아버지에게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끈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동반자 초등학교생 자녀와 양육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치관이 성립되는 초등학교생 시기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양육자를 아버지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나 조부모도 가능하다. 만약 어린이 혼자 교회를 다닐 경우에는 교사가 양육자가 될 수 있다. 동반자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생이 원칙이지만 중고등학생도 가능하다. 사랑부 지체들도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성인 일대일 제자양육과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다른 점은 철저하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점이다. 크게 세 가지가 차이난다. 첫째, 질문 형식이 다르다. 성인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의 질문이 단답식이라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있도록 질문형식을 바꾸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라고 질문한다. 이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나눔도 가능하다.

둘째, 놀이를 통한 활동이 추가됐다. 각 과마다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과 성경 총명한 생활에서 9가지 성경의 열매를 배우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9가지 성경의 열매를 연상하며 과일 샐러드 만드는 활동을 한다.

셋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암송할 11개 구절을 노래로 만들었다. 말씀을 쉽고 오래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교재에 수록된 QR 코드를 찍으면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총 12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정말 좋은 양육 과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활동하고, 노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가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육동건 장로(서빙고 일대일사역팀 대표장로)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을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20

목회칼럼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이해



노희태 목사
(차세대본부장)

일대일사역본부의 기획으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두란노서원에서 발간되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소개되어 행복감을 감출 수 없다. 신명기 명령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것에 큰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성과를 중요시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 성과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평소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자녀의 신앙이 그렇다. 사춘기 이전 자녀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보니 부모들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잊거나 소홀히 여기게 된다. 신앙의 본질적인 성장 보다 가시적인 모습에 만족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큐티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암송을 하는 것은 가시적이고 중요한 교육 수단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모의 신앙 열심이 자녀의 신앙 정도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 첫째, 부모가 성경을 전달하는 과정이 강압적이거나 둘째, 성경이 자녀의 잘잘못을 규정하고 훈육의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셋째,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이 상벌의 기준이 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요구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신앙에 대한 이해이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개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신앙은 한순간의 지식이나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기독교교육학자 엘리스 넬슨은 저서 <신앙교육의 터전>에서 “신앙이란 깊은 차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릴 적에 자신을 돌보아 주는 어른

들에 의해 사회화되는 방식의 결과”라고 정의했다.

둘째, 자녀의 신앙발달에 대한 이해이다. <신앙의 발달이론>의 저자 제임스 파울러는 어린이의 신앙발달 수준을 ‘신화적-문자적 신앙’이라고 정의한다. 어린이들은 이 시기에 신앙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신화적)하게 되지만 여전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문자적이다. 그렇기에 이 시기 신앙교육은 부모가 성경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자녀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성경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이다. 성경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연극 등을 통해 마음 깊숙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성경 교수자 태도에 대한 이해이다. 어린이의 신앙은 여전히 의존적이고 귀속적이다. 그렇기에 부모가 시키는 신앙행식을 따르게 된다. 성경을 전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 전달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눈

빛과 표정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자녀들의 인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전달한다는 소식에 흥분이 된다. 특별히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는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성경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나 역시 둘째 아들과 함께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로 양육을 시작했다. 하루는 아들이 나에게 “아빠! 어린이 일대일 언제 또 해요?”라고 질문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면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온다. 이 사역을 통해 부모가 신앙의 교사로 세워지고,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온 누리 모든 가정에 건강한 소통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차세대 교사가 되어주세요!”

서빙고 30명, 양재 36명, 도곡교육관 12명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서빙고 유치부 15명, 소년부(초등학교 5~6학년) 10명, Y고등부 5명, 양재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20명, 중등부 16명, 도곡교육관 영아부 7명, 초등부(초등학교 3~4학년) 3명, 고등부 2명이 필요하다. 오늘(26일) 서빙고는 본관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차세대실로 문의하면 된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서 세례를 받은 성도여야 한다. 교사사명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사사명교육은 서빙고는 4월 6일부터 6



차세대 교사 모집이 한창이다.

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 301호에서,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간증



김은혜 학생
(고3, Y공동체)

선생님은 나의 활력소이자 힘이 되는 존재다. 특히 Y공동체에서 만난 선생님은 더욱 그랬다. 내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이해해주고 공감 해주셨다.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선생님은 나의 활력소이자 힘”

과 찬양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고 가족 문제도 겹쳤었다. 살기 싫을 정도였다. 그때 선생님이 히즈윌(His Will)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들어보라고 하셨다.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라는 가사가 내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찬양으로 또 한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에게 선생님은 꼭 필요하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꼭 오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한덕종 장로, 아산의학상 수상



한덕종 장로

한덕종 장로(송파공동체)가 ‘제10회 아산의학상’ 임상 의학부문 수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1일 서

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한 장로는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이자 신장 및 췌장 이식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 국내 최초로

1992년 7월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 이식을 성공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생체기증자 췌장 이식까지 성공하며 말기 신부전과 당뇨 합병증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신장이식 4631례(2016년 12월 기준), 췌장이식 350례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면역억제제 및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한 다수의 연구 등으로 국내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웃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성공적 정착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었던 지난 19일에는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주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았다.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들도 보이지 않았다. 교회 주차장도 여유가 있었다.

양재 주차사역팀 김창수 팀장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에 평소에 꽉꽉 차던 지하 주차장이 30%이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성도들도 만족도가 높았다. 김영선 성도(광명공동체)는 “두 딸과 함

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왔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과 택시기사들도 호평했다. 신동아아파트 경비원 오윤택 씨는 “매주 주일이면 차량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오늘은 숨통이 트였다”면서 “한 달에 두 번씩은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택시기사 김순길 씨는 “큰 교회에서 앞장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니 일할 맛이 난다”고 흐뭇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병이 낫고, 걷는 성령의 임재 체험

월요어노인팅, 인도 성령컨퍼런스 개최

월요어노인팅 집회팀이 인도에서 성령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달 네팔에서 열린 성령컨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집회다.

인도 성령컨퍼런스는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인도 다질링, 비잔브리, 포카리아봉, 라바, 비르빠라 지역에서 진행됐다. 70여 교회 90여 명의 목사들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성령컨퍼런스에는 3,300명이

참석했다. 마을주민 350명 모두가 예수를 믿는 라비족(RAVA)을 위한 집회도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688명이 참석했다.

성령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4월 16일부터는 방글라데시에서 성령집회와 치유집회를 이어간다.

참석자 376명 전원 예수 영접!

군선교팀, 6사단 전도집회

전도집회 참석자 376명 전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군선교팀이 개최한 전도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군선교팀이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6사단에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군선교팀원 18명이 예배를 준비하고 장병들을 초청했다. 이날 전도집회는 나영욱 장로(군선교팀)의 기도, 박성천 목사(김포공동체)의 설교, CCM 애드팀의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도집회는 2

차례 진행됐다. 오후 3시에 진행된 집회에는 6사단 6연대 GOP에 근무하는 장병 151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결신했다. 오후 7시 막 오른 전도집회에는 6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225명이 참석해서 전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진형 6사단장은 “지난 전도집회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다”면서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 감사인사를 했다. / 김현준 기자

도곡교육관 개관 7주년 감사예배

도곡교육관 개관 7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주일(19일)에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 이현규 장로, 장광렬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도곡교육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러브소나타 화관 제작 봉사자 모집

사론데코팀에서 화관 제작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화, 수, 금(둘째 주는 수~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된 화관은 오는 7월 26일 러브소나타 동경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749-1149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신문(3월 19일) ‘최후의 보루 군선교’를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를 보고 한 성도님이 해군교육사교회에 천만 원을 헌금하셨고, 또 한 성도님이 해군교육사교회에 매월 <생명의 삶> 12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큰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월 서빙고 세례자

■서빙고	이지훈 150711	김지영 870126	조아인 150605	■J4U
김정식 881113	이승한 이은정	김혜진 870107	조현배유소정	김태훈 830514
송기연 720528	최서유 150311	송대희 740228	조하빈 151207	유아
이미경 761121	최우진 김도연	오창근 780107	조은형서주연	양하진 161214
임정은 780227	임교	왕 나 680731	최유준 160406	양우재 신보미
정성희 700711	김형주 980718	이우선 710208	최승혁지혜라	양하준 161214
유아	박경민 840907	조은실 751212	임교	양우재 신보미
권시안 150629	박해미 811127	최성원 590204	김새미 900817	
권세윤 정진희	배재민 020221	유아	곽제이 150402	■여호수아
김하은 150512	■열린새신자	곽한별 심희원	이다은 870221	이주희 970319
김태훈 황인화	예배	김채원 160405	조혜정 930228	■SNS
박유건 160603	김주성 930823	김호식 김현희	이미리 900811	김윤환 901105
박송주 유지원	신아림 860114	서하준 160115	임교	박세희 870608
박주하 150614	박진우 김아영	서성원 진승림	김다혜 910321	이수현 901009
이정훈 160221	■양재	손민하 150904	차주영 851116	
이현재 황선경	김웅배 720301	손호영 신아영		

세레간증



/ 김정식 성도(용산공동체)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축복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할 때다. 고독한 유학생 생활에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 하지만 나태함과 주변 환경을 탓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에서 사라졌던 교회가 한국으로 온 다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던 아버지가 성도가 되어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퇴직을 당하고 힘들어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육십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셨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랬더니 바랐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또 누나가 받은 은혜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누나는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도 그 기도제목에 끝임없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누나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그것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선물해 주셨다. 누나가 임신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도 받았다. 아이도 순산했다. 아버지와 누나가 겪은

일들을 남들이 보기에는 시험이나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와 누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결과라고 믿는다. 혹자는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으로 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일이 특별한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무신론자였다. 그것도 황혼에 접어든 부모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셨다. 그 일로 누나와 내가 세례까지 받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나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쉽다. 그래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회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내가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에 온 편지



/ 황운하 목사(올네이션스교회)

1다락방 1사역, 참 고맙습니다

저는 2008년 8월부터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양평, 서울, 의정부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은혜로 농장과 공장을 찾아가 이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혼자 하는 선교는 힘들었습니다. 작은 예배당과 동역자를 보내 달라고 늘 간구했습니다. 2015년 지인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작은 예배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 3일에는 3명의 성도들과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네팔, 인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마침 온누리교회 임광순 장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 북부 이주민 선교사역자들 모임에 저를 초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누리교회 순장님들이 아웃리치를 왔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동역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에 기쁨이 더 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순장 아웃리치가 인연이 되어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과 올네이션스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다락방 성도님들과 동역한 이후 매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

다. 자주 가지 못했던 포천, 가산 지역 심방을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습니다. 몇 명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8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해왔지만 20여 명이 모여 은혜를 나누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해로 이주민 형제들과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올네이션스교회에 오셔서 이주민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가 풍성해지는 만큼 예배도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주일 오전에 공장 근로자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백승철, 강성오 집사님께서 자주 참석해 주십니다.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 성도님들이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힘이 됩니다.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현장 나가서 심방하고, 전도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합니다. 자주 가지 못하는 포천, 가산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생각하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온누리교회 강남A공동체 사랑다락방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이주민들을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이주민 선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산M센터 네팔예배 봉사자 간증



/ 신태형 집사(성동광진공동체)

하나님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

아내의 전도로 40대 중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에서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주민 선교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커져 갔다. 어떤 나라 예배를 섬길지를 고민하던 중에 공동체와 연결된 선교사님이 계시는 네팔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곳곳에 있는 힌두교를 상징하는 조각과 그림들이 괴기한 느낌을 주었다. 거짓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자연스레 네팔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게 됐다.

네팔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 세례를 받는 인원이 적다. 그래도 안산M센터에 오면 고향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기는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네팔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도 네팔공동체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2-3년 전에 만난 네팔 부리아 자매랑 수

딕 형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 안산M센터 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양가 부모님이 오시지 못했지만 안산M센터에서 만난 많은 네팔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또 다른 지체 하리와 로페스의 일터에 방문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척박했다. 그래서 일까. 네팔 형제자매들은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삭막한 곳에서 지내다 찬양만 흘러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 한 번은 찬양시간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가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들은 안산M센터와 일터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주민들은 부족한 사랑을 안산M센터에서 받고 있다. 고향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채워간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전한다. 이주민들은 섬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받는 사랑이 훨씬 크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문의: 010-3937-3927

아름다운 동행 수료 간증



/ 김유아 집사(방주교회)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참가할 때 말이다. 그런데 한 주간 한 주간 진행될수록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게 됐다. 그만큼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8년이 됐다. 4~5년 지났을 때부터 가치관과 의견충돌이 잦았다. 이제는 갈등이 생기면 싸우기 싫어서 피해버리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사실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패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래 됐어” 혹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오던 대화가 우리 부부에게 상처가 되었다. 갈등을 물어둔 채 서로 답답해하기만 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아름다운 동행은 각자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이 비판하는 말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것이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배경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면서 남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씩 우리 부부의 대화 패턴이 변해가는 것도 느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나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나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의 원리임을 알게 됐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자녀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동행의 원리로 접근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코치님 부부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부부를 코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크리스천 부부의 10년, 20년 후를 본 것 같았다.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을 미리 엿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부부의 미래도 기대된다.

장로칼럼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시니어미션



남명현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1기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시니어미션을 통해 시니어들도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시니어가 선교사역에 참여하려면 젊은 사역자들을 섬기고 돕는 ‘헬퍼십’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선교사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한 계획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니어들도 선교지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시니어들도 결코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선교 열정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 장로님은 70세를 넘긴 나이에 선교지로 가신 정영렬 장로님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른 장로님은 앞으로 공동체와 젊은 사역자들을 ‘헬퍼십’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오는 3월 31일 2기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시니어미션이 개최된다. 작년에는 외부 선교단체인 ‘21세기 시니어선교회’의 도움으로 훈련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에 맞게 커리큘럼을 개편했다. 교재도 새롭게 준비했다. 50대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시니어선교학교에 참석할 수 있다.

올해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첫째, 시니어들이 선교현장과 선교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주

근로자들의 주거 부정, 신분 불안, 다문화 가정의 의사소통, 문화 적응, 자녀양육 등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된 이후 경험하는 문화충격 스트레스, 인간관계 상실, 가족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싱글 선교사의 애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이해도 도와준다.

둘째, 시니어들이 훈련을 수료하고 난 이후 선교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시니어들이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을 줄 것이다. 이주근로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파송된 이후 받게 되는 문화충격 극복 과정과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선교사를 위한 케어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시니어들이 가진 신앙훈련 경험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기 아웃리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역과 활동도 알려 줄 것이다.

셋째, 시니어가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사역 원리와 자기 관리 방법을 제시해준다. 사역을 돕기 위한 시니어 선교 영성의 핵심은 ‘헬퍼십’임을 더 깊이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3월 31일 개설되는 온누리선교학교 시니어미션에 참여해서 세계선교 역사의 흐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한다.

문의: 010-3377-5167

권사칼럼

이웃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오임숙 권사
(양천공동체)

18년 전 쯤이다. 우리 순원들은 소외된 이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그 해 순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순장님이 오셔서 한 장애인 시설을 섬기자고 제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신 것이다. 나와 순원들은 바로 순종했다. 그곳이 내가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살롬의 집’이다.

살롬의 집에 처음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원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33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있었다. 신체 한쪽을 못 쓰는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등 장애 종류가 다양했다. 대부분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형제와 부모가 있어도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시설에 온 지체들도 있었다.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쥐와 바퀴벌레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했다. 위생도 좋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았다. 복지재단이 되기 위한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손가락과 그릇을 소독해주시기를 원했다. 위생 때문이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마다 그곳을 찾아가다. 식기를 소독하고, 같이 밥 먹고, 빨래도 해주고, 함께 예배도 드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 없던 지체들이 1년, 2년 꾸준히 찾아갔더니 나중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 순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빠지기 시작했다. 다 같이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없으니 힘들었다. 나 또한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

다.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그만 둘 수 없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섬긴 지 10년쯤 됐을 때다. 내 마음에 전환점 되는 사건이 생겼다. 살롬의 집 사람들 중에 노동을 하는 지체들이 몇몇 있었는데 평소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식사를 차려주고 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거니시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따뜻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그 순간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의 영혼을 맡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나의 몸은 약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작년에 1다락방 1사역이 선포된 후 다락방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살롬의 집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연락한 것이다. 반가운 마음으로 살롬의 집을 소개해주었다. 그렇게 작년 부터 양천공동체가 함께 살롬의 집을 섬기고 있다. 또한 후원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른다. 살롬의 집 원장님과 지체들이 정말 좋아한다. 원장님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축복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인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부족한 2% 채워라!

신앙에세이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온누리교회가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영성의 기초로 삼은 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열매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과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의 부족함을 느껴왔다. 그 이유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하는데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회는 물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교회에서 실시되는 모든 훈련을 열심히 받았지만 삶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신앙인도 많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체험했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은 신앙인도 많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사는 경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타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 큐티나 일대일 제자양육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늘 궁금했다.

그 이유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건강한 감정을 갖지 못하면 건강한 영성도 가질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한 감정은 소홀한 채 영성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을 해왔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아직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감정을 통합하여 건강한 신앙인을 추구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한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와 섬김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건강하지 않은 내면이 온전해질 때 제자양육의 열매도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창 1:27). 그 형상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담겨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적 요소, 하나님을 믿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요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요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육체적 요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

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나 제자양육이 감정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좋다는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해도 어린아이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2% 부족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신앙성숙도 멈추고 말 것이다. 성숙이란 신앙과 정서가 온전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다. 신앙은 강조되고, 감정이 무시된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리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문의: 02-3215-3532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처벌하시고,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종의 하나로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십자가는 2~3세기 이후부터 형성되었습니다. 헬라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투스의 이니셜을 풀어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약자입니다. 실제 초기 기독교 문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의 물고기, 우리들을 작은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물에 다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니는 물고기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강물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영어로 ‘Surrend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삶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연결됩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에너지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내 힘을 뺏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의 힘,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힘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 네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고 네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6~9절).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걸을 때,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말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괴롭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나 가족, 이웃들에게 말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삶 속에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는 것은 이웃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맨날 싸우는데 집 앞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는 것은 가정과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다닙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목에다 매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한 노력의 표현일 뿐이지 마음에 새기는 일 없이 외형적으로 대문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11~12절).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최초의 타락이 에덴동산이라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맛사에 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15~1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신들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이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1980년대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수출할 때였다. 당시 필자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로 현대자동차 분석보고서를 손에 들고 다니며 미국전역에서 코리아펀드 투자설명회를 했다. 당시 일본계 투자자들은 한국차는 강동을 두드려 만든 것이라며 안정성을 지적하며 투자를 회피했고, 미국계 연기금들은 극동 지방에서 일본 다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것 자체가 대견하고 재미있다고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당시 한국은 지금의 베트남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높은 성장 가능성과 높은 위험성을 가진 미지의 나라였다.

필자가 소속된 미국 증권회사는 글로벌 투자업계의 큰손 템플턴 투자회사의 관심을 끌어야 했다. 큰손이 움직이면 여타 손들도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큰 부담을 안고 템플턴 본사를 방문했다. 대서양이 한눈에 보이는 템플

턴 회장(템플턴 폴리처상을 창안한 독실한 기독교 장로)실에 들어가니 초로의 회장이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은?”이라고 물었다. 당시 한국의 평균연령은 27세였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였다. 템플턴 회장은 27세라는 숫자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회장은 흥조를 띠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으로 시작한 미팅은 장장 2시간을 넘게 진행됐고 결국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금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은 40.3세, 65세 이상은 전인구의 12.7%다. 엄청난 고령화 나라가 되었다. 출산률은 1.1명으로 세계 최저이다. 35세에서 67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올해 3,700만 명에서 2065년에는 2,000만 명으로 격감한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고령화 법안을 만들고 개선을 기대했지만 효과

는 없었다. 금후로도 속수무책이다.

남한의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노동인구 5,300만 명이 확보된다. 전국의 신생아는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통일 한국의 총인구도 8,000만 명이 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경제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도의 성장을 맞보았던 1980년대의 청년 대한민국이 부활할 수 있다. 물론,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영국경제전문지 《Economist》의 추정에 의하면 비용은 1,000조원이며, 수익은 1경원에 달한다. 북한의 광물 자원의 가치는 통일비용의 10배 약 1경원에 추정된다. 단순한 손익계산으로는 거의 9배의 투자수익률이 된다.

흔히들 갑작스런 통일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통일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좌충

우돌 당국과 국민적 혼란만 심해졌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금후 20년의 통일준비 기간이 주어져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어쩌면 통일을 깜짝 선물처럼 주실 것 같다. 그때를 대비해서 열 처녀의 비유(마 25:2)에 나오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한밤중에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두려워만 하지 말자.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 가나안 땅을 본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관점을 달리해 통일을 바라보자. 통일은 하나님이 미래세대에게 주시는 큰 기회이다.



정진호 장로
(통일위원회,
증권애널리스트)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CGNTV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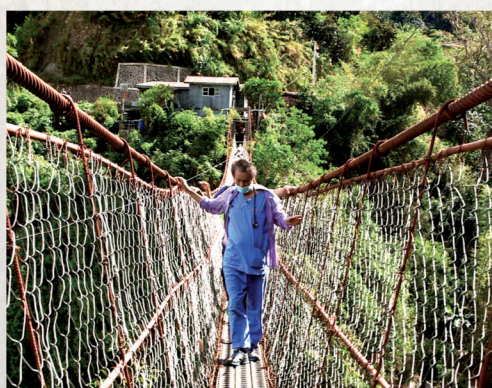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 28년 동안 필리핀 오지를 누빈 박누가 선교사
15번의 항암 치료와 시한부 선고도 꺼뜨릴 수 없는 필리핀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던 삶의 기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깐요.
내가 필요한 곳이니깐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항암치료 후 필리핀 누가선교병원에서



방송 4월 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 재방송 4월 4일 (화) 오후 3시 30분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KEB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